

# 전통문화 콘텐츠로 주말을 풍성하게

## 경기전 수복청 상설공연 재개

나들이하기 좋은 봄철을 맞아 전주한옥마을의 전통문화콘텐츠가 풍성해진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휴식기에 들어갔던 경기전 수복청 상설공연과 경기전 수문장 교대식 등 전통문화콘텐츠 운영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수복청 공연은 지난 6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여를 휴식기를 제외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기전 수복청에서 진행된다.

수복청공연은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문화통신사 협동조합이 주관하며, 이들은 '한옥마을 콘서트 전통음악산책'을 주제로 궁중음악과 재즈, 민속음악 등 다양한 퓨전국악 공연을 통해 옛 전통문화의 멋과 가치를 친근하게 담아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시는 수복청 공연을 통해 여행객과 전주시민들에게 국악과 판소리 등 우리국악에 대해 알리고, 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오는 20일부터 10월까지 한옥마을 태조로와 경기전 앞에서 '경기전을 지켜라! 수문장 교대식'도 선보일 계획이다.

수문장 교대식은 조선시대 왕궁을 수위하던 수문장 교대식을 재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7년부터 계속해온 전주한옥마을의 대표적인 볼거리이다.

수문장 교대식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소



전주시가 휴식기에 들어갔던 경기전 수복청 상설공연을 재개한다.

리문화관에서 경기전으로 이어지는 수문군의 순리행렬과 경기전 정문에서 수문장 교대식이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된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수문장 교대식이 진행되기 전후 경기전 정문에 2명의 수문장을 배치해 관광객 포토타임 등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주고, 수문군 행렬에는 무예 퍼포먼스와 취타대 연주 등을 추가해 더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수복청공연과 수문장 교대식에 이어 오는 5월부터는 △왕과의 산책 △전주문화재야

행 △경기전사람들 등 다양한 주·야간 콘텐츠 프로그램을 추가 선보일 예정이다.

황권주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수복청 공연과 경기전 수문장 교대식 등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전주한옥마을 대표 문화콘텐츠이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형 전통 공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이자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도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끄는 핵심 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태권도진흥재단, 태권도학과 대학생 단기 해외 파견 시행... 21일까지 지원자 모집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태권도학과(전공) 대학생들에게 지도 경험을 제공하고 해외 태권도 보급 등을 위해 태권도학과 대학생 단기 해외 파견(이하 해외 파견) 사업을 시행하며 이달 21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해외 파견은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는 국가 중 대만과 몽골·베트남·체코·벨라루스·에콰도르 등 아시아·유럽·아메리카 9개국 10개 지역으로 세종학당 내 태권도 교실에서 태권도 지도를 담당할 20명을 선발해 8월 한 달간 파견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만 30세 이하의 태권도학과(전공)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태권도 4단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해외 파견 유경험자와 영어 또는 현지어가 가능한 인원은 우대할 예정이다.

재단은 서류와 면접·실기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학생들에 대해서 7월 초(7월 1일~7일/예정) 태권도원에 소집하여 해외 파견 전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품새·겨루기·호신술·태권체조 등 태권도 관련 지도법과 함께 영어, 응급처치, 글로벌 매너, 대인관계 등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을 가질 계획이다.



태권도 사진공모전 수상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이상욱 이사장은 "태권도 전공 대학생들의 해외 진출 등 취업지원과 태권도 저변 확대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태권도를 통해 대한민국의 멋과 예를 전파하고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세종학당 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외 파견 최종 선발자는 현지 세종학당 내에서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며 200만원(세진)의 활동비와 입·출국을 위한 항공료 등을 지원받는다.

태권도진흥재단 단기 해외 파견 대학생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태권도진흥재단 및 태권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063-320-0618 으로 하면 된다.

/우주·전문선 기자

## ‘우리, 기억해요! 4·16’

덕진품애작은도서관, 노란리본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덕진품애작은도서관(관장 안이순)은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우리, 기억해요! 4·16’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2회에 걸쳐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변화를 되돌아보고 참사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40여명은 첫날, 유가족의 사연을 낭독해보고 직접 노란 리본을 만들었으며, 지난6일에는 덕진구 주위를 돌면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노란리본을 건네주면서 4.16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기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청소년(중1)은 “어르신들께 정중히 여쭙고 활동 의의를 이야기해드리니 귀 기울여 들으시고 호의적으로 받아주셔서 참 뿌듯했다”면서 “앞으로도 세월호를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이순 덕진품애작은도서관장은 “작은 행사로 청소년들에게 민주 시민 자질과 참여 의식을 자연스럽게 접하는 계기가 만들고,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는 민주 사랑방으로 작은도서관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 공연 사진.

## “장수를 밝히는 기적의 오케스트라 함께해요”

빛나는 오케스트라 신규 단원 모집

장수군은 9월 2019년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적의 오케스트라 장수 빛나는 오케스트라는 아동들에게 고른 음악교육을 제공하고 음악을 통한 정서 함양과 감성을 키워 창의적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3년 창단됐다.

현재 지역아동 60명이 오케스트라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으며 정기 연주회와 각종 행사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이번 신규 단원 모집 대상은 장수에 주소를 둔 10세(2010년생부터)~14세까지며 모집파트

는 바이올린 6명, 첼로 2명, 더블베이스 2명, 클라리넷 1명, 비순 1명, 트럼펫 4명, 트럼본 2명, 호른 2명 등 현악과 과악 파트 총 20명이다.

심사는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으로 진행되며 서류 접수는 8일부터 15일까지며 장수군청 홈페이지 접수 서류를 작성해 장수한누리전당 1층 장수문화원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할 경우 악기와 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되며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교육을 받고 단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 홈페이지(<https://www.jangsu.go.kr>) 또는 문화체육관광과(063-350-2316)로 문의 하면 된다.

/장수=교관호 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